

numbers 제 72호



주요 내용

2020. 11. 20

1. 이번 주 주제 : [2020 대한민국 트렌드 - '남성 육아의 인식 변화']
남성 육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89%) '필요하다'
2. [코로나19 7차 국민인식조사 결과]
'코로나 불안도' 61%,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불안감 보임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2020 대한민국 트렌드

남성 육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89%) ‘필요하다’

부부에 대한 호칭 가운데 예전에 남편은 ‘바깥 사람’, 아내는 ‘안 사람’이라고 불렀다. 이 말은 부부 간의 역할 구분을 그대로 드러낸 말이다. 그래서 집안 살림, 자녀 키우기 등은 모두 ‘안 사람’인 아내의 역할이고, 남편이 가끔이라도 가사 노동에 참여하면 그것은 아내를 ‘도와주는 것’이고, 아내를 ‘도와주는 남편’은 가정적인 남편, 좋은 남편이 되었다.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 이제 남편도 밥 짓기, 요리하기, 설거지, 빨래하기 등을 아내가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고, 남편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다. 아내의 가사 노동 가운데 ‘육아’는 오롯이 엄마 몫으로 생각했다. 다른 건 몰라도 육아는 아이를 낳고 기른 엄마의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남성 육아도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

남성 육아 방법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것이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얻는 것인데, 2019년 남성 육아휴직자가 22,297명으로 2만 명을 돌파했다. 그 속도가 가파르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72호에서는 새 시대의 트렌드인 육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대적 이유와, 남성 육아의 의미, 남성 육아의 유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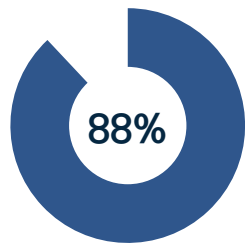


남성 육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89%)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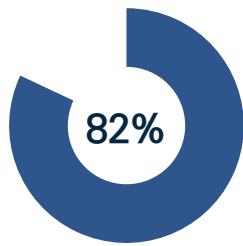
- 전통적인 우리의 성 역할에서 육아는 엄마, 즉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남성 육아를 국민 대부분이 당연한 것(88%)으로 여길 정도로 인식이 변했다.
- 또한 남성이 육아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국민의 89%일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그림] 남성 육아에 대한 인식1(동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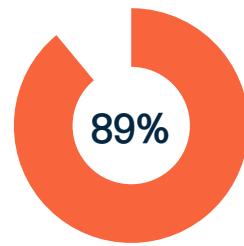
[그림] 남성 육아에 대한 필요성(동의율)



아빠들이 육아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남성 육아는 한국
사회가 발전하며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남성 육아
활동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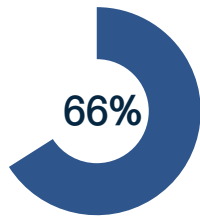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 모니터, '2020 남성(아빠) 육아 관련 조사', 2020. 6.26(전국, 만16~65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4.08~04.13)

● 남성 육아, 부부라면 당연한 것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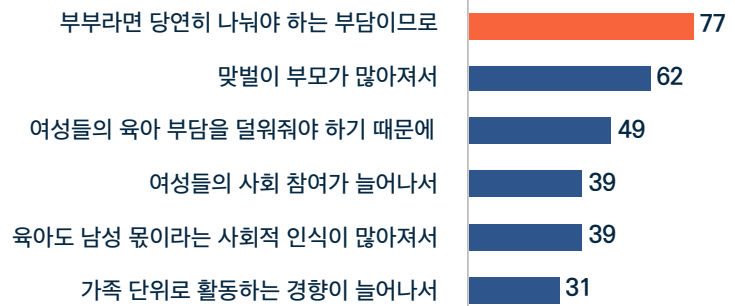
- 왜 남성 육아가 당연한 것이 되었을까?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여 육아 부담이 커져서 남성 육아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이 혼자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남성 육아는 필수이다'라는 응답이 66%인 것을 보면 여성의 경제 활동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의 증가(맞벌이 부부가 많아져서 62%,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서 39%)가 남성 육아 필요성의 중요한 이유이지만 기본적으로 부모 간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가 더 큰 이유로 나타났다(부부라면 당연히 나눠야 하므로 77%, 육아도 남성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많아져서 39%).

[그림] 남성 육아에 대한 인식 2

[그림] 남성 육아가 필요한 이유(남성 육아가 필요하다는 응답자, (%) 상위 6위)



현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혼자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남성 육아는 필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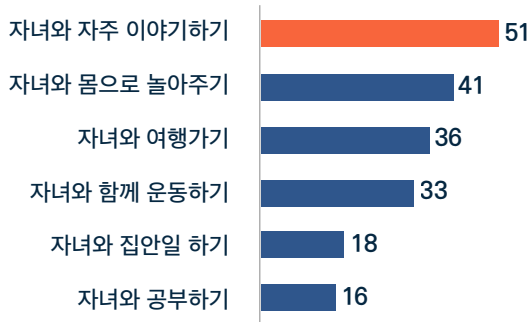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 모니터, '2020 남성(아빠) 육아 관련 조사', 2020. 6.26(전국, 만16~65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4.08~04.13)

● 남성 육아, 아با와 자녀의 소통 과정

- 남성 육아 활동 가운데 가장 보람된 활동은 '자녀와 자주 이야기하기'(51%), '자녀와 몸으로 놀아 주기'(41%)였다. 그 외에 '자녀와 여행하기'(36%), '자녀와 운동하기'(33%)였다.
- 남성 육아가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여 주는 데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아با와 자녀 간의 소통, 교류, 친밀감 상승, 추억 쌓기 등으로 이어졌다. 남성 육아는 아바를 돈 벌어 오는 존재가 아니라 낳고 기르는 '아빠'가 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그림] 가장 보람되는 남성 육아 활동(상위 7개) (%)



*자료 출처: 트렌드 모니터, '2020 남성(아빠) 육아 관련 조사', 2020. 6.26(전국, 만16-65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4.08-0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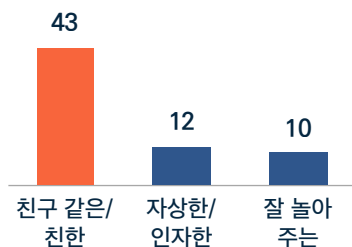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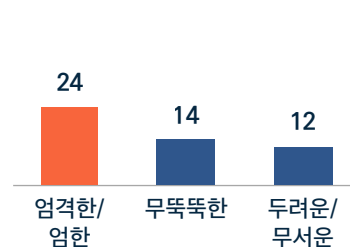
요즘 아바들이 가장 원하는 아버지상, '친구 같은 아바' 43%

-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친구같은 아버지'(43%)가 되기 원한다(인구보건협회, 49세 이하 아바 대상 조사). 그리고 '자상하며 인자한 아버지'(12%)와 '잘 놀아 주는 아버지'(10%)도 자신이 닮고 싶은 아버지의 모습이다.
- 이는 전통적인 아버지의 모습과 다르다. 응답자 자신들의 아버지 모습은 '엄격하고 엄한'(24%) 아버지였고, '무뚝뚝'했으며(14%), 그래서 '두렵고/무서운' 아버지(12%)였다. 그러나 지금 그런 아버지를 둔 아들은 자신의 자녀와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길 원하고 있다.

[그림] 원하는 아버지상(49세 이하 아바 대상, 상위 3개) (%)



[그림] 본인의 아버지상(49세 이하 아바 대상, 상위 3개) (%)



*자료 출처: 인구보건복지협회, '보도자료:아바들이 말하는 육아 경험과 의미 조사 결과 발표', 2019. 8. 20(전국 미취학 자녀가 있는 20세-49세 남성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5.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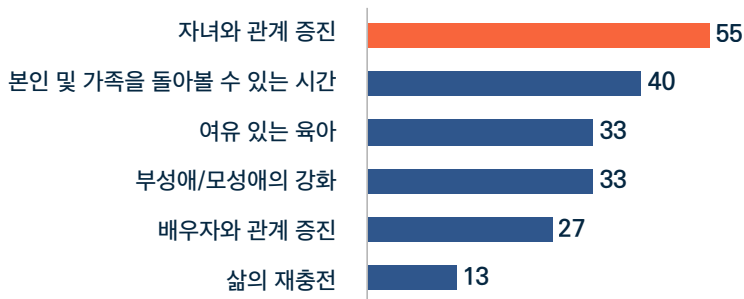
3



남성 육아의 유익1 ‘자녀와 관계 좋아졌다’ 55%

-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때의 좋은 점은 ‘자녀와 관계 증진’(55%)이 가장 좋다고 했는데, 이는 응답자 본인이 되고 싶었던 아버지 상, 즉 ‘친구같은/친한’ 아버지의 모습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어머니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자녀는 부성애를 느낄 기회는 많지 않고 거의 모성애만 느낄 수 있는데,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하면 ‘모성애 뿐만 아니라 부성애도 강화’(33%)된다고 한다.

[그림] 남성 육아휴직 사용 시 좋았던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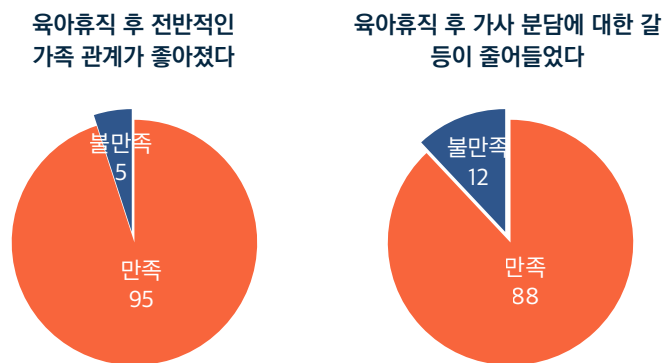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보도자료: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육구 조사', 2018. 1.10(전국 육아휴직 경험 남성 200명, 온라인 조사, 2017. 11.24.~12.7)

● 남성 육아의 유익2, ‘가족 관계 좋아졌다’ 95%

- 남성이 육아라는 큰 가사를 나눠 짐으로써 아내의 가사 부담을 줄여주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가사 분담에 대한 갈등이 줄어들었다(88%).
- 또한 남성 육아가 아빠와 자녀의 관계만 증진해 주는 것이 아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줄어들면서 가족 전반의 관계가 좋아지는 경험(95%)을 하게 되어서 남성 육아가 가정의 행복에 크게 기여한다.

[그림] 남성의 육아휴직 후 만족도(동의율) (%)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2019. 7(전국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만25~44세 남성 221명, 온라인조사, 2019. 6.24.~7.15)

● 아이와 친밀하다 '3.9점'(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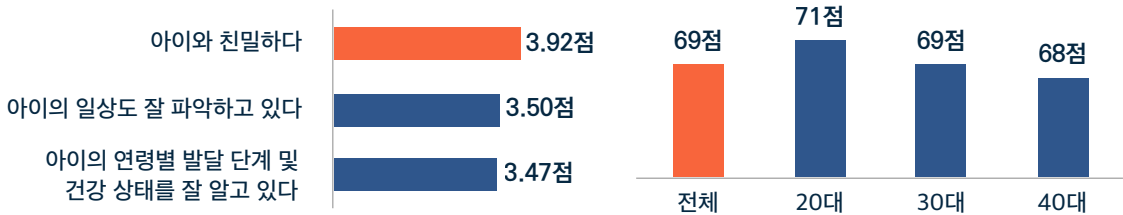
(점)

(점)

- 육아하는 아버지들은 육아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아버지상을 구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이와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5점 만점, 3.92점). 뿐만 아니라 아이의 일상도 잘 파악하고 있고(3.50점), 아이의 발달 및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다(3.47점).
- 이들은 아빠로서의 역할도 100점 만점에 69점으로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아버지 나이가 낮을수록 양육 시간을 더 많이 갖는데, 이들이 아빠로서의 역할 평가도 더 높게 하고 있다.

[그림] 아빠 본인의 자녀 양육 관련 평가(5점 만점)

[그림] 아빠로서 자신의 역할 평가(10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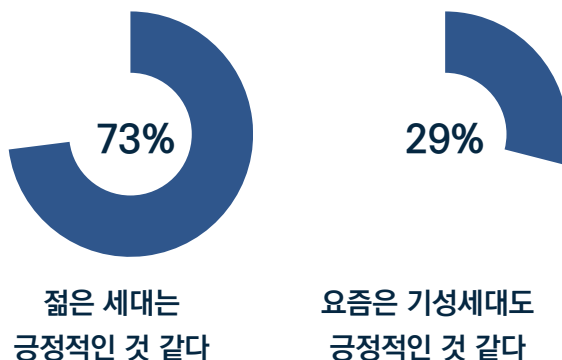
4



남성 육아, 세대별로 인식이 달라

- 남성 육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은 세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젊은 세대는 남성의 육아활동에 긍정적인 것 같다'는 진술에 73%가 동의하여 젊은 세대의 시각이 긍정적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 그러나 '요즘은 기성세대도 긍정적인 것 같다'는 진술에는 29%만 동의하여 '기성세대는 남성 육아에 대해 부정적이다'라는 일반적 통념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림] 세대별 남성 육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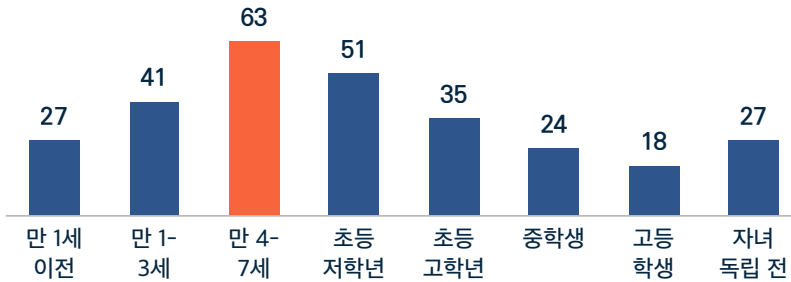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 모니터, '2020 남성(아빠) 육아 관련 조사, 2020. 6.26(전국, 만16~65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4.08~04.13)

● 남성 육아, 유치원~초등 저학년 때 가장 필요해!

- 남성 육아가 가장 필요한 시기는 언제일까? 가장 필요한 시기는 만 4세~7세 때라고 한다(63%). 이 나이가 되면 자녀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어머니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때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남성 육아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남성 육아가 가장 필요한 자녀 연령대 (%)



*자료 출처 : 트렌드 모니터, '2020 남성(아빠) 육아 관련 조사, 2020. 6.26(전국, 만16~65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4.08~0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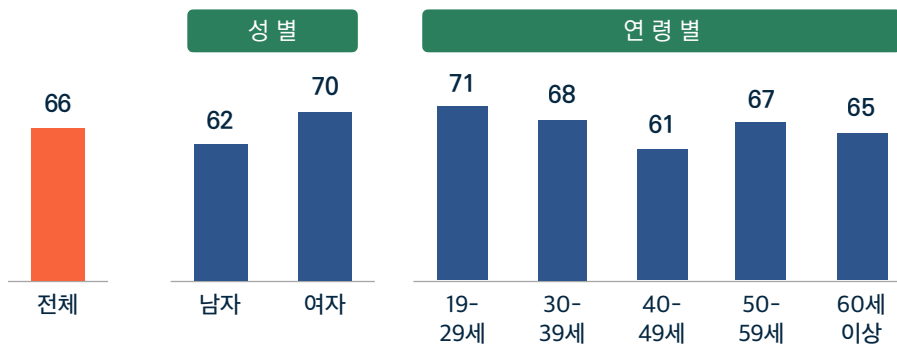
5



남성 육아휴직 희망, 3명 중 2명(66%)

- 남성이 자녀를 육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형태가 육아휴직인데 국민 가운데 66%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남성 육아휴직을 할 의향이 있거나 추천할 의향이 있다.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여성이 70%의 높은 추천 의향률을 보이는데, 남성도 62%라는 높은 본인 의향 또는 추천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도 19~29세가 71%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기는 하지만 다른 연령대도 60%를 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남성 육아휴직 희망 혹은 추천 의향률(의향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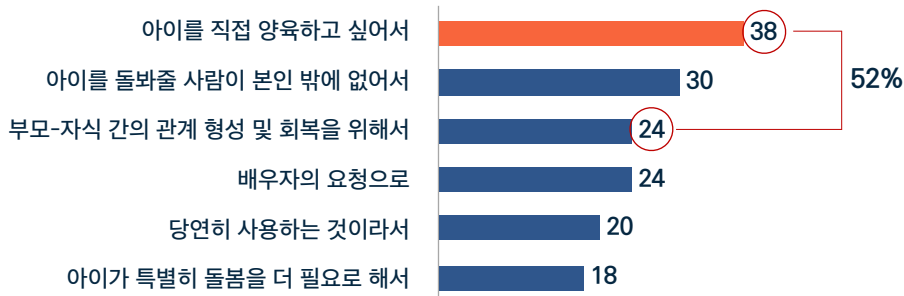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아빠 육아 어디까지 왔나?' 2020. 10.18(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0.04~10.07)

● 아버지로서의 역할 위해 육아휴직 사용, 52%

- 육아휴직을 한 경험이 있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계기는 '아이들 돌봐 줄 사람이 본인 밖에 없어서'(30%)라든가 '배우자의 요청으로'(24%) 등 현실 여건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싶어서'(38%)와 '부모-자식간의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24%)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즉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의 실천으로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남성 육아휴직 제도 사용 계기(중복 응답) (%)



*자료 출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보도자료: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육구 조사', 2018. 1.10(전국 육아휴직 경험 남성 200명, 온라인 조사, 2017. 11.24.~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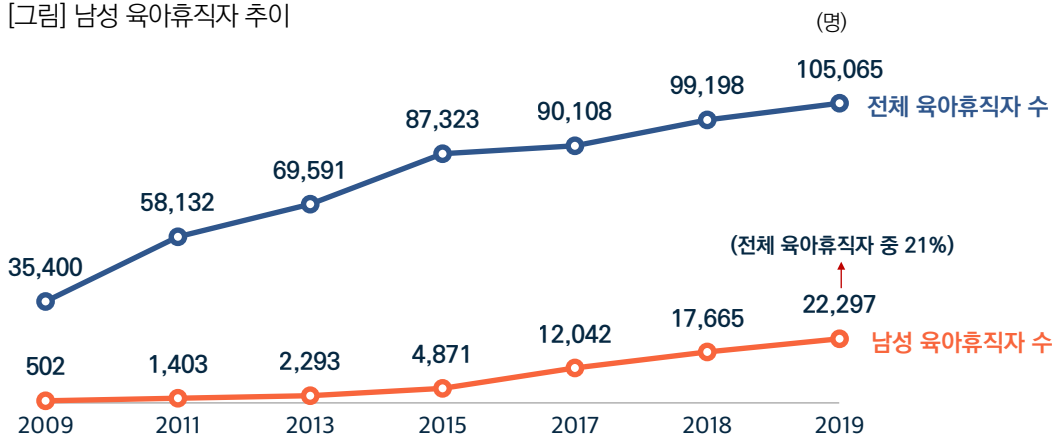
6



남성 육아휴직자, 2만 명 돌파!

- 2019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22,297명으로 2만명을 돌파했다. 10년 전인 2009년에 남성 육아휴직자가 502명이었는데 10년 사이 44배가 증가한 것이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2009년 35,400명에서 2019년 105,065명으로 약 3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남성 육아휴직자 수의 급등은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높다.
-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09년에는 1.4%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9년에는 21%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다.

[그림] 남성 육아휴직자 추이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9년 아빠 육아휴직자, 최초로 2만명 돌파', 2020.1.23



시사점

남성도 육아를 요구받고 스스로 원하는 시대가 되었다. 남성 육아가 대두된 것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이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등의 경제 활동을 하면서 가사 노동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상황이 되었다. 흔히 직장, 집안 살림, 육아 등을 도맡아 하는 여성을 일컬어 '수퍼 우먼' 혹은 '수퍼 맘'이라고 한다, 그만큼 벅찬 일이라는 의미이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 생활이 많아졌다. 동네 또래 주부들간의 만남, 친구들 만남, 동호회, 배움 등의 여러 모임이 있어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도 바쁜 하루를 보낸다. 이들에게도 가사 노동은 버거운 일이 되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가사 일을 도와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고 남편도 응해 주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요즘에 '남성 육아' 말 대신에 '아빠 육아'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늘고 있다. '말'은 생각이다. 그러므로 말이 바뀐다면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다. 예전 미성년 시절에는 부모님을 아빠, 엄마로 불렀지만 성인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고쳐 불렀다. 하지만 요즘에는 성인들도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 대신에 아빠, 엄마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쓴다. 부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성 육아' 대신에 '아빠 육아'라는 말이 퍼진다는 것은 남성이 육아를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다. 남성 육아는 여성과 남성 간의 관계에서 육아를 바라보는 말이다. 즉 여성의 일을 분담한다는 의미가 많이 묻어 있는 말이다. 이 말 속에는 여전히 남성이 여성을 '도와준다'는 시혜적 의미가 있다. 즉 배려의 대상에 막상 육아의 대상인 아이는 없다. 그런데 아빠 육아는 자녀와 아빠와의 관계에서 육아를 생각하는 말이다. 즉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육아 부담을 나눠 지는 것이 아니고 아이에게 필요한 유익이 되는 관점에서 아빠의 역할을 바라보는 말이다.

아이에게는 엄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빠도 있다. 아이가 자라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 영향을 받아 인성과 사회성 등을 배우며 사회화된다. 여성과 남성은 기질과 특성이 많이 다른데 엄마의 손에서만 양육이 되면 아이는 엄마의 영향에서만 키워지고 아빠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게 된다. 만약 부모가 모두 육아에 참여한다면 그 아이는 균형잡힌 인성을 갖춘 존재로 클 수 있다. 아빠의 육아 참여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감당해야 할 아빠의 자격이며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남성 육아의 또 다른 유익은 가정이 화목해진다는 점이다(8쪽 참조). 남편이 가정에 관심을 가지면서 부부 간의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 협력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 밖에 없다. 또 아내의 부담을 줄여 주면서 아내와 신뢰감이 높아지므로 부부 관계가 돈독해 진다.

남성 육아는 아빠의 '아빠되기' 프로젝트다. 아빠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가정에서 잃었던 아빠의 자리를 찾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사회적 기관/제도가 가정인데 이 가정의 자녀가 균형잡힌 인성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정당화해주고,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크리스천 중에 이렇듯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많아질수록 이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이 될 것이고, 교회의 신뢰도가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올라가게 될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코로나19 7차 국민인식조사 결과]
‘코로나 불안도’ 61%,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불안감 보임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코로나19 7차 국민인식조사 결과〉(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

그동안 [넘버즈]에서는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후 한국 교회 리더들이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 일상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발표되는 코로나19 관련 일반 국민과 개신교인들의 조사 결과를 시의성 있게 추적해서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10월 말에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교수팀이 조사한 '코로나19 7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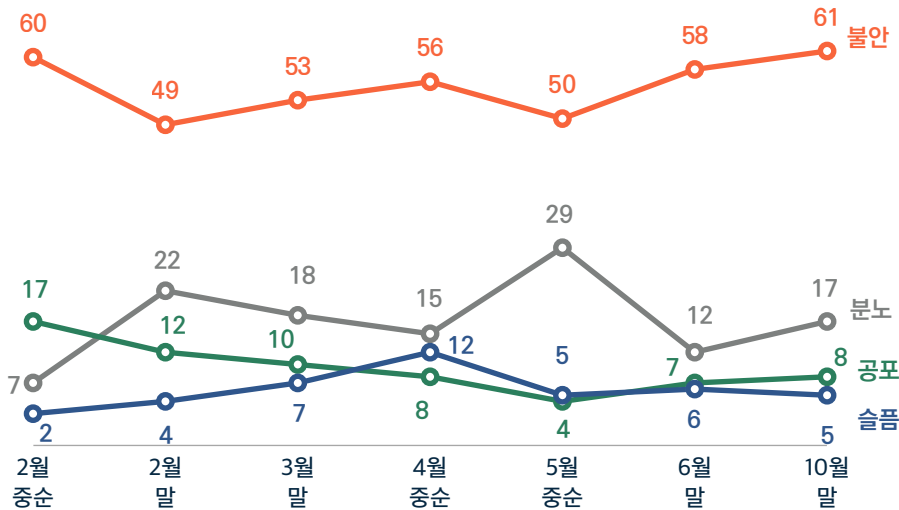
1



10월 말 기준 코로나 블루 현상, '코로나 불안하다' 61%,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불안감 보임

-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이 접하는 뉴스나 정보에 대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심리 상태를 질문했는데, 10월 말 기준 '불안'이 61%로 가장 높았고, '분노' 17%, '공포' 8%, '슬픔' 5% 순으로 응답함
- 현재의 불안심리(61%)는 처음 발생했을 때(1차 조사, 2월 중순) 불안 지수 60%와 맞먹는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특히 4가지 심리 상태 중,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가 늘어날 때 '불안'과 '분노' 심리 상태도 함께 증가하는 형태를 띠

[그림] 코로나19 뉴스나 정보에 대해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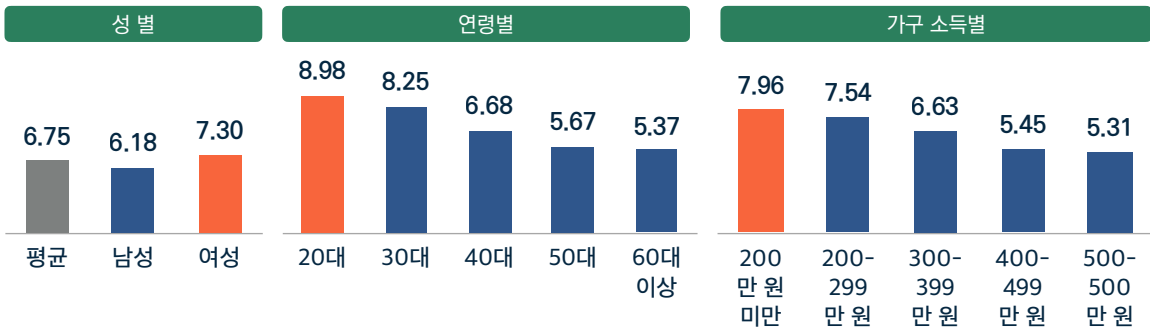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교수팀, '7차 코로나19 대국민 인식조사', 2020.11.03.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모바일/이메일)조사, 2020.10.27.~10.29)

●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20-30대 젊은층'과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높음

- 우울증을 측정하는 테스트인 PHQ-9**를 통해 우리 국민의 정신 건강 상태를 살펴본 결과, 평균 점수는 6.75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남성은 6.18점, 여성은 7.30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특히 연령별로 '20대'가 8.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득별로는 '200만 원 미만' 층에서 7.9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젊은층과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우울증 증상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각 교회에서 이들 계층에 대한 세심한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우울증 평균 점수**

(점)



*자료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교수팀, '7차 코로나19 대국민 인식조사', 2020.11.03.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모바일/이메일)조사, 2020.10.27.~10.29)

**PHQ(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측정 : 우울증 자가 진단 테스트로서 총 9문항을 4점 척도(0-3점까지로 0은 '전혀 그렇지 않다', 3은 '거의 매일')로 질문하여 응답 결과를 모두 합한 점수로 측정하는데, 8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 상황인 것으로 해석함. 본 조사의 경우 전체 평균값은 6.75점으로 나타남

2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위축 정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53% 수준

-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의 일상생활의 위축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의 일상생활의 정도를 '완전한 일상 정지(0점) ~ '완전한 일상 회복(100점)' 중에서 몇 점인지를 측정하게 한 결과, 평균 53점으로 나타나 현재의 우리 국민의 일상의 삶 정도가 코로나 이전 대비 5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시기인 3월 말~4월 초의 42점에 비하면 일상 회복 정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일상 수준은 평소의 절반 정도로 위축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위축 정도(평균 점수)

(점)



*자료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교수팀, '7차 코로나19 대국민 인식조사', 2020.11.03.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모바일/이메일)조사, 2020.10.27.~1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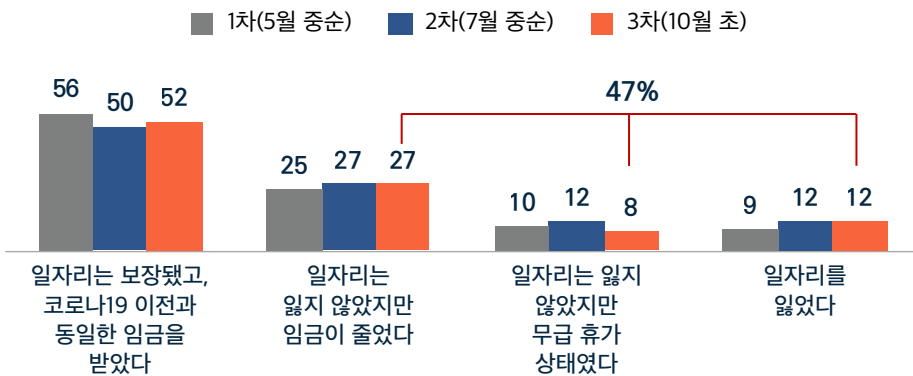
3



코로나19로 전국민의 2명 중 1명 정도(10월 기준), '임금 감소', '실직', '무급 휴가'

-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지난 10월 초 실시한 '제 3차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와 임금 변화 관련, 응답자의 52%만 일자리를 유지하며 코로나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임금 감소(27%), 실직(12%), 무급 휴가(8%) 등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47%로 나타남
- 특히 코로나19로 일자리의 변화를 체감하게 된 5월말~6월초 조사와 비교하면 임금 감소+무급 휴가+실직 비율이 45%에서 47%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친 영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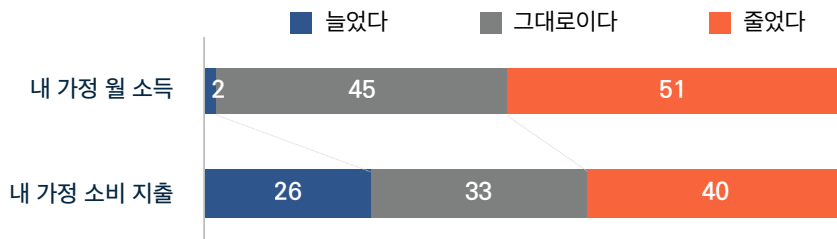


*자료 출처: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제3차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 2020.10.22.(경기도 거주 만 18세 성인 남녀, 2,548명, 온라인 조사, 2020.10.05.-13)

● 코로나19로 인해 '월 가정 소득 줄었다' 51%

-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경기도민의 가정 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코로나19 이전 대비 월 소득에 대해 응답자의 51%가 '줄었다'고 응답해, 2가구 중 1가구 꼴로 코로나19가 가정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출은 이전 대비 '줄었다' 40%, '늘었다' 26%로 응답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면서 지출 역시 허리띠 졸라매듯 줄인 것으로 보임

[그림]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비/지출 변화 (%)



*자료 출처: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제3차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 2020.10.22.(경기도 거주 만 18세 성인 남녀, 2,548명, 온라인 조사, 2020.10.0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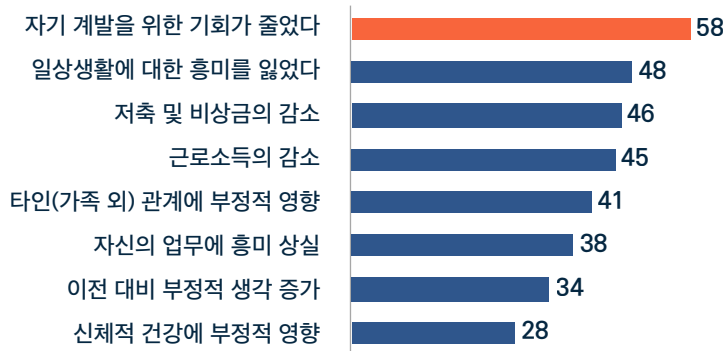
4



코로나19로 인해 ‘자기계발 기회와 일상 흥미’가 가장 큰 타격!

-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의 ‘코로나19 7차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자원(Resource)에 대해 질문한 결과, 우리 국민은 ‘자기계발을 위한 기회의 감소’를 58%로 가장 높게 꼽았고, 두 번째가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 감소’(48%)를 꼽았음
- 코로나19로 인해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과 ‘일상의 흥미 상실’이 가장 크게 고갈된 자원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 사태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앞으로 이런 고갈된 자원의 회복을 위해 사회적 노력과 한편으로 교회 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저축 및 비상금의 감소’ 46%, ‘근로 소득의 감소’ 45% 등 경제적 타격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 관계에 부정적 영향’ 41%, ‘이전 대비 부정적 생각 증가’ 34% 등도 높아 삶의 전반에 걸친 공동체적 돌봄이 매우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남

[그림] 코로나19로 인한 자원 손실 정도(상위 8위) (%)



*자료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교수팀, '7차 코로나19 대국민 인식조사', 2020.11.03.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모바일/이메일)조사, 2020.10.27.~10.29)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사
회
일
반

[누가 자살 생각을 가장 많이 하나](#)

중앙일보_2020.11.19.

[국민 30%, 미혼자 40% "비혼 출산 찬성"... 사유리 응원 이유 있었네](#)

한국일보_2020.11.18.

[국민 10명 중 7명 "집전화 사라질 것"... 시대 흐름 맞는 역할 변화 필요](#)

아주경제_2020.11.15.

[3살짜리도 레벨테스트...이제는 하다하다 '유치원 캐슬'?](#)

조선일보_2020.11.14.

[국민 절반 북핵 위협 우리도 핵무기 개발해야](#)

한국경제_2020.11.13.

경
제

[4重苦에 우는 중소기업, 90%가 "내년에도 암울하다"](#)

조선일보_2020.11.18.

["한국땅 쓸어담는 중국인...8년새 14배 증가"](#)

매일경제_2020.11.16.

코
로
나
1
9

[코로나 시대...정신건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한국일보_2020.11.17.

[신한카드 2400만명 빅데이터 분석 '25% 덜 움직이고, 집콕에 200% 더 투자했다'](#)

조선일보_2020.11.18.

[코로나로 분배 악화...고소득층 소득 3% 늘때 저소득층은 1% 감소](#)

연합뉴스_2020.11.19.

큐
레
이
션

[최근 잇단 선거에서 진보정당이 이긴 이유 ; 유권자 연령 변화 분석\(한국갤럽 데이터 분석\)](#)

한겨레_2020.11.16.

[미국 대선 사후 분석](#)

동아일보_2020.11.14.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1-33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33-58호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59-70호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 제 67호 |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 전년 대비 38% 증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만 명으로 역대 최대!
- 제 68호 | 트로트 전성시대!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생활의 변화 '체중 증가/운동량 감소',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유튜브' 1위
- 제 69호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세! |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미국인,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 제 70호 |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권!
- 제 71호 |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차지!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과천제일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재)기독교선교햇불,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 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 트로인, (주)하츠,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병희, 이만민, 이미경, 이완중, 이영선,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우성, 장병우, 장형철, 정종섭, 정준, 전치영,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가나다순)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

김은선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햇불회